

6월 농식품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 중국농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4월 당월		1~4월 누계	
	금 액	전년동기대비(%)	금 액	전년동기대비(%)
◦ 수 출 액	49.7	-3.0	192.8	3.2
◦ 수 입 액	92.4	22.6	347.9	27.4
□ 무역수지	-42.7		-155.0	

자료원 : 중국상무부

- 중국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1~4월 중국수출입총액은 540.6억불을 달성함. 이 중 중국수입총액은 347.9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7.4% 상승하였고 수출총액은 192.8억불로 전년동기대비 3% 하락함.

□ 한국산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천불)

품목	'11.4	'12.4	증감%	1위		2위		3위		한국산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자당	46,146	47,517	3.0	태국	7,418	호주	1,092	인도	396	37,848
커피조제품	12,419	15,138	21.9	말레이시아	5,485	베트남	1,984	콜롬비아	1,243	726
홍삼	13,123	6,182	-52.9	북한	441	-	-	-	-	5,741
대두유	389,255	479,611	23.2	브라질	293,605	아르헨티나	185,384	인도	472	79
조제분유	216,503	328,866	51.9	싱가폴	82,31	네덜란드	71,250	뉴질랜드	62,898	7,240
라면	5,535	8,084	46.1	홍콩	2,129	대만	1,835	이태리	473	2,366
간장	4,880	4,726	-3.2	일본	1,443	싱가폴	1,306	대만	778	210
소주	4,083	4,974	21.8	일본	2,226	프랑스	145	대만	116	2,093
채소종자	29,357	27,619	-5.9	미국	5,676	일본	5,398	태국	2919	768

※ 자료원 : 중국 총수입액과 기타 국별 수입액은 www.kita.net,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 시 해관에 타 H.S 코드로 신고하여 한국수출실적보다 적음

□ 중국 주요 부류별 수입현황(대외수입)

주요 농산물 부류별 수입현황

(단위 : 만불)

품목부류	4월누계			품목부류	4월누계		
	2011	2012	증감		2011	2012	증감
산동물	8,600.0	12,066.2	40.3	동식물유지 등	318,955.1	362,258.5	13.6
축산육류 및 잡육	54,725.0	99,889.1	82.5	육류제품	207.2	288.9	39.4
가금육 및 잡육	34,814.1	24,510.1	-29.6	수산물제품	3,263.4	3,129.8	-4.1
수, 해산품	163,347.0	174,414.2	6.8	당류제품	22,858.7	58,433.2	155.6
유제품, 난류, 꿀 등	109,229.3	128,590.7	17.7	코코아, 그제품	12,014.1	16,019.3	33.3
기타 동물산품	13,352.6	13,888.8	4.0	곡물, 전분제품 등	41,629.2	61,528.5	47.8
산식물 및 화훼	2,644.4	2,813.5	6.4	채소, 과일, 견과제품	18,810.3	19,126.7	1.7
식용채소	68,461.4	90,013.1	31.5	기타식품	24,161.5	27,305.7	13.0
식용과실 및 견과	95,480.0	145,952.3	52.9	음료, 술 및 식초	67,637.8	84,997.9	25.7
커피, 차, 조미향료	6,578.3	8,138.2	23.7	식품공업 잔류물	87,535.0	90,494.8	3.4
곡 물	39,511.9	163,225.9	313.1	연초 및 그제품	21,341.2	46,045.2	115.8
제분공업제품	19,924.6	15,055.1	-24.4	기타농산품	553,974.6	734,579.0	32.6
유료, 볏짚, 사료 등	926,720.1	1,084,072.8	17.0	가금류제품	39,459.2	29,955.7	-24.1
식물액, 즙	4,391.0	6,111.8	39.2	축산제품	374,587.8	451,314.7	20.5
편직용 식물재료	10,528.8	6,071.8	-42.3	-			

※ 자료원: 중국상무부

□ 향후 시장 전망

○ 수입전망

부류	품목	수입전망
소스류	간장	(2011.5월누계) 740천불 → (2012.5월누계) 416천불 (43.8% 감소) ◦ 다양한 용도의 중국간장과는 달리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한국특색을 나타내기 어려운 제품이어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으로 작용
	된장	(2011.5월누계) 624천불 → (2012.5월누계) 320천불 (48.7% 감소) ◦ 한식당을 찾는 중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불고기와 쌈 문화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연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라벨링강화 등으로 수출감소
	고추장	(2011.5월누계) 1,874천불 → (2012.5월누계) 1,206천불 (35.6% 감소) ◦ 한국비빔밥과 떡볶이 등 한식의 현지인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음. ◦ 특히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증가추세에 있어 식재료용으로 수입되는 국산 고추장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소폭증가 전망되나 최근 라벨링강화 등 통관강화로 수출감소
	마요네즈	(2011.5월누계) 1,808천불 → (2012.5월누계) 1,595천불 (11.8% 감소)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채식수요 증가로 마요네즈 수요증가 ◦ 한국산 마요네즈의 소매가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 수준이나 품질은 일본산과 비슷하여 시장경쟁력이 높음 ◦ 일본지진으로 일본산 마요네즈 수입이 어렵고 업소용(3.2kg) 수요까지 늘어 한국산 마요네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연간 수출은 증가 전망
주류	소주	(2011.5월누계) 2,235천불 → (2012.5월누계) 2,799천불 (25.2% 증가) ◦ 한국 드라마 시청확대에 따른 소주의 인지도 증가, 낮은 도수, 한식당을 찾는 중국인 증가로 수출 증가전망
	맥주	(2011.5월누계) 2,088천불 → (2012.5월누계) 3,295천불 (57.8% 증가) ◦ 북경, 상해 등 1선도시와 2선도시 주요 대형매장, 백화점 등 현지 주류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증가 전망
	막걸리	(2011.5월누계) 472천불 → (2012.5월누계) 607천불 (28.5% 증가) ◦ 현재 막걸리는 교민시장 위주이나 북경 및 상해 주요 대형매장, 백화점 등 현지 주류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증가 전망

부류	품목	수입전망
유제품	생우유	(2011.5월누계) 109천불 → (2012.5월누계) 761천불 (598% 증가) ◦ 대형마트 입점확대 등으로 수출량 크게 증가중. 2분기에는 북경 등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수출량 증가 확대 예상
	조제분유	(2011.5월누계) 10,258천불 → (2012.5월누계) 15,268천불 (48.8% 증가) ◦ 중국 소황제 의식과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수입산 분유 수요 급증 ◦ 매장 입점확대 등 인지도 제고로 수출은 지속 증가할 전망
기타 가공식품	커피	(2011.5월누계) 316천불 → (2012.5월누계) 335천불 (5.8% 증가) ◦ 기존 차 문화에서 서구 커피문화 확산으로 커피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음 ◦ 스타벅스, COSTA 등 중국 내 커피 프랜차이즈 붐이 일어 젊은 층 유인 ◦ 한국산 커피는 관세 30%, 증치세 17%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편이나 뛰어난 동결건조 기술로 커피 향의 보존이 우수하여 중국소비자들이 선호(중국커피는 네스카페 위주)하여 연간 수출은 증가 전망
	유자차	(2011.5월누계) 7,053천불 → (2012.5월누계) 6,902천불 (2.1% 감소) ◦ 국내 작황 부진으로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액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자당	(2011.5월누계) 47,186천불 → (2012.5월누계) 52,596천불 (11.5% 증가) ◦ 금년 원당선물가격은 연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상기후와 투기자본의 가격인상 복병은 여전히 존재. ◦ 중국은 원당 정제기술 부족으로 설탕품질이 낮아(알갱이가 큼), 고급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 기피하고 있고, 만성적인 설탕부족 국가로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국산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라면	(2011.5) 9,017천불 → (2012.5) 12,504천불 (38.7% 증가) ◦ 현지 생산으로 인해 수출확대 어려우나, 현지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은 보합 전망
	비스킷	(2011.5) 4,592천불 → (2012.5) 8,870천불 (93.2% 증가) ◦ 일본산 가공식품 대체효과가 큰 품목이자,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 대도시 대형유통매장과 함께 지방도시 로컬 편의점 등으로 판로가 확대되는 등 현지 소비 증가하고 있어 수출 증가 전망
채소 버섯류	채소종자	(2011.5월누계) 1,440천불 → (2012.5월누계) 2,345천불 (62.84% 증가) ◦ 한국산 채소종자는 당근, 고추, 무, 배추종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 한국산 채소종자는 주로 여름재배위주품목으로 현단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연간 수출은 증가 전망 * 연간 3~4회의 농사가 가능한 남방시장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
	팽이버섯	(2011.5월누계) 778천불 → (2012.5월누계) 231천불 (70.3% 감소) ◦ 중국내 팽이버섯 생산시설 증가로 인한 공급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수출여건 악화 전망

□ 중국 음료수 시장동향

- 최근 몇 년간 중국 음료산업은 식품업계에서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업종으로 일본을 앞질러 세계2위 음료수 생산소비국으로 발돋움함. 2011년 중국음료생산량은 11,762만톤에 달하여 2010년 동기대비 22% 증가함. 또한 음료산업의 발전은 이와 관련된 농산물가공업, 설비제조업, 포장제조업 등 업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가져옴.

□ 시장현황

○ 중국 음료수 생산량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생산량(만톤)	8,086.21	9,641.25	11,762.32
증가율	26%	19%	22%

자료원: 이덕사보조사자료

- 2009-2011년 중국음료수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나타내고 있음. 2009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26%에 달하고 2010년 증가율은 조금 하락하여 19%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에는 다시 2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산량 또한 처음으로 1억톤을 초과함.

○ 2009-2011년 중국 음료수 품목별 생산비율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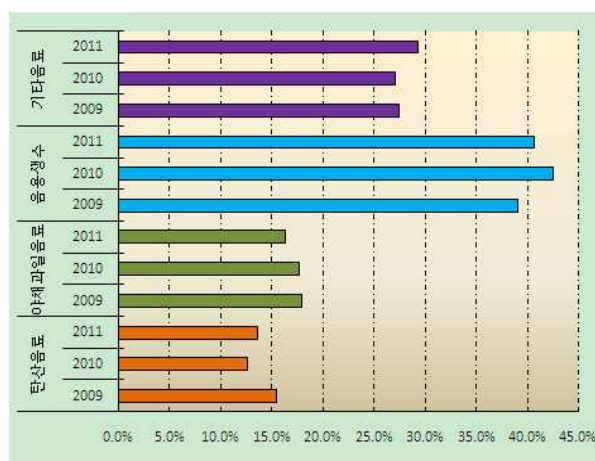
품목	2009년	2010년	2011년
탄산음료	15.5%	12.7%	13.7%
야채과일음료	17.9%	17.7%	16.3%
음용생수	39.1%	42.6%	40.7%
기타 음료	27.5%	27.1%	29.3%

자료원: 이덕사보조사자료

- 2009-2011년 포장음용생수의 생산량이 전체 음료수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평균 40% 이상을 차지함. 채소과일음료수가 다음으로 전체 음료수생산량의 17%정도를 차지하고 탄산음료가 14%좌우 기타 음료가 약 28%를 차지함. 전체적으로 볼 때 2009-2011년 매년 품목별로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지만 수치에 큰 변화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2009-2011 중국 음료수 생산량



2009-2011 품목별 생산비율 통계

○ 중국음료수 소비특징

- 성별, 연령별로 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다름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소비자들이 광천수와 탄산음료를 선호하는데 비해 여성소비자들은 건강과 미용에 좋은 야채과일음료 유제품 음료를 선호함. 젊은 층과 저소득층은 음료의 맛을 선호하는데 비해 중,고소득층은 음료의 품질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노년층에서는 설탕 지방 등 함유량이 적은 음료를 선호함.

- 지역에 따라 선호도가 다름

상해와 무한을 중심으로 하는 화동화중지역에서는 짠맛음료수를 선호하는데 비해 북경, 천진지역에서는 매실즙음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성도·중경지역에서는 박하 맛 음료수를 선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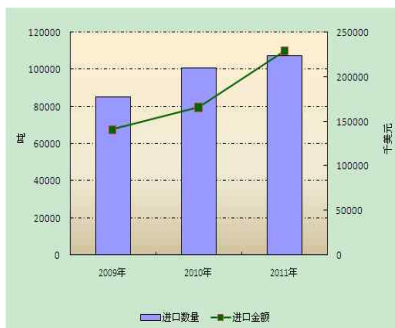
○ 음료수 수입현황

2009-2011년 중국 품목별 음료수 수입현황

(단위: 톤, 천불)

년도	야채과일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2009년	85,045.5	141,068	72,699.2	45,439	1,151.6	4,109
2010년	100,577.8	165,701	84,558.5	55,100	2,341.6	6,909
2011년	107,193.9	228,627	84,550.8	62,590	2,700.5	6,504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2009-2011 야채과일음료 수입 비교표



2009-2011 탄산음료 수입 비교표



2009-2011 발효음료 수입 비교표

- 중국 소비층에 건강에 대한 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음료수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최근 3년간 중국의 야채과일음료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단가의 증가로 인해 수입액 또한 매년 증가 증가추세임.
- 탄산음료의 수입량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 비해 1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탄산음료의 주요소비층은 18-30세사이의 젊은층으로 영양과 건강에 비해 유행에 민감하여 탄산음료에 대한 소요는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 발효음료에 대한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10년의 수입량은 2009년의 2배에 도달함. 수입평균단가를 살펴보면 매년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9-2011년 한국산 음료수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톤, 천불)

년도	야채과일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2009년	298	396.4	26,332	14,263.3	434	965.3
2010년	81	110.8	28,343	16,933.2	1,266	1616.0
2011년	-	-	27,612	20,109.6	1,773	21,195.0
2012년1-4월		320.2		7,792.0		626.2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 최근 3년간 한국산 수입량을 보면 2010년 수입량이 가장 많음. 과일채소음료는 2009년의 수입량이 가장 많고 2011년에는 수입이 없음. 탄산음료의 수입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7.6%에 달성함. 발효음료에 대한 수입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한국음료수입액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발효음료의 2011년 수입액은 2010년 동기대비 13배가량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높음.

□ 시사점

- 기존 한국산 음료제품은 한국적 특색이 비교적 강함, 특히 과육이 들어있는 포도, 오렌지, 배, 알로에 등 제품은 현지인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음. 현지인들의 소비경향을 주목하여 한국특색의 신규제품 개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함

※ 자료원 : 베이징aT센터, 리더스프기업관리자문유한책임공사

< 저작권자 © aT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